

돼지 농사로 연간 14억 소득 '전남 최고 농군' 태흥종축 전 성 주씨



어미돼지 1마리당 18마리 생산

'돼지농사' 하나로 연간 14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농민이 있어 개발과고로 위기에 처한 전남지역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태흥종축 전성주(38·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대표는 지난해 2만5천마리의 돼지를 팔아 14억원의 소득을 기록, 당당히 전남 최고의 농군에 선정됐다.

전 씨가 최고 소득을 올린 비결은 제 때 사료를 주고 치밀한 방역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때문이다. 우리나라 1만2천여 양돈농가가 지난해 모든 1마리당 평균 12.5마리를 생산한 데 반해 태흥종축은 18마리를 생산했다. 현재 미국의 생산성은 17마리, 축산 선진국은 20마리를 웃돌고

美國 생산성 앞질러... 원가절감 통해 고소득 "치밀한 질병예방관리로 생산성 향상 피해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 군산이 고향인 전 대표는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지난 99년 양돈업에 뛰어들어 이색 농민이다. 2000년 태흥종축을 인수한 뒤 현재 4만1천여평의 부지에 32동의 축사를 보유해 1천400마리의 중돈을 포함, 1만7천2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전 대표는 "개방은 분명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00kg 성돈 1마리 생산비를 비교해볼 때 미국은 우리나라

의 3분의 1에 불과해 돼지가 전편 수입개방될 경우 양돈농가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식문화 차이도 양돈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삼겹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지만, 미국인들은 삼겹살보다 등심이나 안심을 선호한다.

현재 우리나라 삼겹살 1kg 도매 가격이 8천원인데 반해 미국산은 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산 삼겹살이 흥수처럼 들어오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국

내산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 대표의 얘기다.

전 대표는 "더욱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수입사료가 2000년 대비 지난해 40% 오른 것도 양돈농가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면서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조사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업인은 850명으로, 전년 661명에 비해 28.6% 증가했다. 이는 전남도내 전체 농가 47만8천가구의 0.1%를 차지한 수치다.

또 1억~2억원 671명, 2억~3억

원 91명, 3억~5억원 53명, 5억~10억원 29명, 10억원 이상 6농가였다.

시·군별로는 나주 124명, 장성 61명, 무안 53명, 해남 49명, 순천 44명, 신안 43명, 장흥·강진 각 41명, 고흥·영광 각 38명, 보성·곡성 각 36명, 담양·화순·완도 각 35명, 광양·영암 각 31명, 진도 23명, 구례 22명, 함평 18명, 여수 16명 등이다.

전남지역 농가의 소득액은 1천494억3천500만원이었으며, 축산 864억5천300만원(57.9%), 식량 192억9천700만원(12.9%), 채소 146억3천400만원(9.8%) 순으로 집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집값 내려도 분양가는 상승세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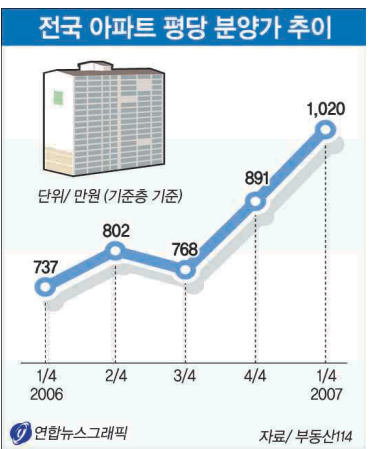
지방 분양시장 침체 공급물량 대폭 줄어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올들어 아파트 분양실적이 건설사의 당초 목표치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평당 평균 1천20만원을 기록, 지난해 4.4분기의 평당 891만원에 비해 평당 129만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006년 1·4분기 737만원에서 2·4분기 802만원으로 오른 뒤 3·4분기 768만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11·15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4·4분기와 올해까지 계속 상승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4분기 평당 1천511만원에서 작년 4·4분기에



평당 1천966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1·4분기는 서초구 서초아트자이 등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따라 평당 2천53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별 아파트의 입지여건이나 품질, 브랜드가 서로 달라 가격차가 나긴 하지만 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서두르면서도 가격은 크게 낮추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對日 무역적자폭 다시 확대

올 3월까지 72억불... 對中 흑자폭은 줄어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한때 개선조짐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는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는 72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60억4천만달러에 비해 11억7천만달러 악화됐다.

대일(對日)적자는 2004년 244억4천만달러에서 2005년 243억8천만달러로 소폭 축소됐으나 2006년에는 253억3천만달러로 다시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對中)흑자는 2004년 201억8천만달러에서 2005년 232억7천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209억7천만달러로 줄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41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억2천만달러에 비해 5억3천만달러 축소됐다.

이처럼 대일적자는 확대되는데 반해 대중흑자가 줄어드는 것은 일본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OTZE 전국 로드쇼' 기아차는 로제 어드밴스 출시를 기념해 지난 주말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는 '2007 LOTZE 전국 로드쇼'를 개최하고 이색 전시회와 시승행사를 펼치고 있다. 로드쇼는 로제 어드밴스 10대로 이루어진 2개팀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소재 테마파크와 백화점 등지를 돌며 진행된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기아차, 지난해 2,907억 순손실

기아차는 2006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2천9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지난해 30일 공시했다.

기아차는 또 지난해 결산결과 국내

에서선 1천27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나 유럽 등지에서의 손실로 영업손실액은 3천65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지난해 원·

달러 환율하락으로 채산성 악화가 이어진데다 노조파업과 주력차종의 판매부진 등이 영업손실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일반·전문건설 영역구분 폐지

내년 1월부터 시행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 작업반장(집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 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간막이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에 하위법령 정비

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75년 단종공사법(전문건설법)이 도입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던 일반·전문 건설업간 겸업제한을 없앴다. 건교부는 업역간 제한이 없어지면 겸업중인 4천여개 업체가 다른 업종의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기성실적이 100억원을 넘는 1천1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부실 페이퍼컴퍼니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희기자 choice@

여성기업인 박람회 참가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가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2007 여성기업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내 여성기업 중 2007년 3월1일~6월30일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기본 부스임차료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는 4일까지 신청서(www.womanbiz.or.kr 공지사항 참고)를 제출하면 전시품목의 상품성, 정책호응도·매출액·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통보하고, 해당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전시회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용 목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문의 (062) 523-6028. 이종태기자 jilee@

Jeju Island Travel Advertisement.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어행사. 제주도 현지어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이진을 돌려 드립니다.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분재예술향,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78,000원.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78,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59,000원(주중+주중) 169,000원(주중+주말). 렌트카 파격할인. 전차중 75% 할인 ※네비게이션 포함.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2박3일 크루즈+항공투어] 119,000원(주중) / 139,000원(주말). 2박3일 항공플트투어 369,000원. 1박2일 항공플트투어 379,000원. 오픈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면 49,500 = 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품 적용). 조흥은행 708-01-074067 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www.jejumt.net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Dume Food Advertisement.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